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말씀: 마16:13-17

배경

좋은 선생과 제자: 좋은 질문과 바른 대답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부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심.
우리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 기본기가 없으면 주저 앉는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허사이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직분을 가졌어도 허사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성인 중의 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줄 아는 것이 구원과 성화와 보상의 핵심이다(요17:3; 롬10:9-10).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들의 대답(14절)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1. 침례자 요한: 헤롯(마14:2), 회개 촉구,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선포
2. 엘리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말4:5), 기적과 표적을 이룬 인물, 사렙다 과부의 빵의 기적(오병이어), 죽은 아이를 살림, 요르단 강의 물을 말려 건너감
3.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 유다 민족을 향한 눈물의 대언자(눅19:41), 오해와 박해를 받음, 모세와 같은 대언자(신18:18)
4. 모두 다 좋은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빠져 있다. 충분하지 않다.
5. 모든 대답이 부족하다(사실은 틀린 대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요4:14).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6. 눈으로 보고도 다른 대답을 한다.
요10장의 실로암 소경 사건: 그는 마귀 들렸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후5:7).
당신은 어떤가? ★★★

지난 20세기 동안 일반 사람들의 대답

예수님은 대중들의 여론 조사에 의해 존재와 성격이 확정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확실히 보여 준다.
1. 그분은 인간처럼 보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피 흘림, 부활 부인, 케린투스의 가현론
2. 그분은 하나님 다음 가는 신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다. 4세기경의 아리우스 주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
3. 그분은 인간일 뿐이다. 1세기의 유대교 지도자들, 알베르트 슈바이처: 역사적 예수 연구, 노벨 평화상 수상(1952년), 당신은 어떤가?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15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더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바르게 그분을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답을 듣기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대중의 견해가 아닌 너희 자신의 믿음
침례 받을 때 질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벧전3:15).

베드로의 대답(16절)

베드로의 대답: 당신은 그리스도시요(the Christ),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완전한 대답이요, 진실한 대답이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함축한 대답이다. 당신은 어떤가? ★★★
1. 대언자가 아니라 메시아: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메시아의 통치와 주님의 날, 창3:15, 모세의 대언자, 다윗의 씨, 고난 받는 메시아(사53:5), 다니엘의 70이레, 후반부 대언자들의 공통 주제
"당신은 곧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입니다."
2.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다(13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어떤가? ★★★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고백이다.
3. 살아 계신 하나님:
가이사랴 빌립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킬로미터, 헤르몬 산의 기슭, 이방인들의 땅
바알 숭배, 그리스 사람들의 신인 판(Pan) 숭배, 헤롯 대왕은 카이사를 위한 제단 건축
이 세상의 신들은 모두 거짓 신이요, 죽은 신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부처, 공자, 마호메트, 조셉 스미스, 신천지의 이만희 보혜사, 통일교의 문선명,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찬탈해 가는 목사들
죽을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들
4. 교회를 다닐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목사와 집사와 리더들
당신은 어떤가? ★★★

이런 대답의 복과 출처(17절)

1.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아들), 요나(비둘기),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자, 너는 출생이 비천한 자다.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마11:25-27, 고전1:26-29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이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
구약의 복과 다르다.
2. 이 대답의 출처
혈과 육이 아니다. 부모에게서 나지 않는다. 좋은 선생에게서 나지 않는다.
수많은 박사들(진화론자들), 육신에게서 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오감이 아니라 영감까지 가진 사람들만 이런 대답을 한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둔 사람만 이런 대답을 한다.
당신은 어떤가? ★★★
3. 이 답변의 특징
이 답변 전에도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요6:68-69). 무슨 차이가 있는가?
(1) 예수님이 요구하셨다.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다. 기적에 따른 답변이 아니다.
(2) 예수님이 기뻐하신 답변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답변이 있어야 교회의 지체가 된다.
당신은 어떤가? ★★★

결론

당신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